

반도체·LCD 상반기 수출 “콧노래”

KOTRA, 1/4분기 수출종합지수 50 상회 … 자동차 가전도 증가 전망

2010년 상반기에 반도체·LCD(Liquid Crystal Display)를 비롯한 수출이 본격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KOTRA와 삼성경제연구소(SERI)의 <2010년 1분기 코트라-SERI 수출종합지수>에 따르면, 2010년 1/4분기 지수는 54.6이고, 2/4분기 지수는 61.9로 나타났다.

해외 바이어들을 상대로 주문금액, 수출국 경기, 가격 및 품질 경쟁력 등 4가지 항목을 조사해 산출하는 수출종합지수가 50을 넘으면 전기대비 수출경기가 나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는 뜻이다.

1/4분기 지수를 품목별로 보면 자동차와 LCD가 각각 62.4와 60.8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무선통신(58.0), 반도체(57.7), 철강(55.5), 가전(55.1)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아시아(60.3), 북미(57.4) 및 중국(56.6) 수출 전망이 밝았고, 중남미(49.8)와 독립국가연합(47.5) 및 일본(45.0) 수출은 다소 부진할 것으로 전망됐다.

2/4분기에는 반도체, LCD, 자동차, 무선통신, 철강 등 주력 수출품목의 지수가 대부분 60을 넘어 1/4분기보다 호전될 것으로 예상됐다.

수출종합지수가 상승한 원인으로는 바이어 주재국의 상반기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국산 제품의 품질·가격 경쟁력이 높아진 것이 주요 원인으로 거론됐다.

KOTRA 오성근 통상정보본부장은 “경제위기 이후 2010년 들어 아시아 신흥 시장뿐만 아니라 선진국의 경기회복도 기대된다”며 공격적인 수출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0/01/13>